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07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and **2** blank pages.



Passage 1 을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하근찬의 소설 [수난 이대] 중 일부입니다. 아버지 '박만도'는 삼대 독자 아들 '진수'가 전장에서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 꽤액-.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았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 들었다.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흠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째랑째랑 하고 종이 울자 한참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푹푹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험사리 눈에 띠지 않았다. 저 쪽 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속에 두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나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 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쪼개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펴 도는 것이었다.
- '에라이 이놈아!'
-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 '아부지'
- '이놈아, 이놈아...'
-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곁에 눈물이 께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 무뚝뚝한 한 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 <중략>
- 주막을 나선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찌긋등찌긋등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다가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달랑달랑 춤을 추었다.
- '진수야! 니 우째다가 그래 됐노?'
-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심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 '수류탄 쪼가리에?'

-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균의관이 찢라 버립디더. 병원서예. 아버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디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 40
 ‘...’
 ‘나 봐라. 전쟁에서 팔뚝 하나 잃었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보기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야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으니까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습디.’ 45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러까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댕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대겠나. 그제?’
 ‘예’ 50
 진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긋이 웃어 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 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뭍음을 입에 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소.’ 하였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 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든다. 55
-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 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 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르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뭍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펍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짙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꽝!’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과랑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왔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75

- 1 Passage 1 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는 가능하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 + 5 = 25$ 점입니다.)

- (a) line 2 의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왜 그랬을까요? [1]
- (b) 만도는 역에서 왜 아들을 바로 찾지 못했습니까? [1]
- (c) 만도와 진수의 불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3]
- (d) lines 15–16 의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
- (e) 진수는 왜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까? [1]
- (f) 만도는 팔이 하나 없는 자신과 다리가 하나 없는 아들 진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1]
- (g) 만도와 진수는 서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2]
- (h) 불행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한 삶의 의욕을 보이는 만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대화 3 개를 찾아 써 보십시오. [3]
- (i) 진수도 아버지처럼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수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수 있는 대화를 찾아 쓰고 설명해 보십시오. [4]
- (j) 이 소설속에서 만도와 진수가 한쪽 팔과 한 쪽 다리가 없는 서로의 불편함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한쪽 팔이 되어주고 아버지는 아들의 한쪽 다리가 되어 주도록 하여 서로 돕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데 쓰인 중요한 소재는 무엇입니까? [2]
- (k) 자신의 불행이 시대적 책임이라는 만도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목을 찾아 써 보십시오. [1]

Passage 2 를 주의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다음 글은 박경리의 <불신시대> 중의 일부분입니다. 주인공 진영의 불행한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9.28 수복 전야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전에 경인도로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소년병은 물 한모금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 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 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찌개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 5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1.4 후퇴 때 세살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 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란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란짐을 끌던 소는 굴레를 찬 채 독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을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10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중략>

문수가 자라서 아홉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날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 한 아이는 도수장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갔다. 15 20

<중략>

진영은 성당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 놓고 신 도둑질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을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헤살꾼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헤살꾼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연금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닢 던졌을 때 그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 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밖으로 나와 버렸다. 25 30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중략>

문수의 뉘이라도 위로하게 천도재라도 지내주자는 어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해 절에 갔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 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35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쫓고 뺏뺏한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심환짜리 스무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쫓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종이 목을 길게 뽑아 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40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 온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내리막길에서 잡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 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중략> 45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진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도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직접적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이 들었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H 병원은 빈 약병을 팔았다.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50

<중략> 55
진영은 머리를 쓸어 올린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갔다. 문수의 사진을 놓고 한동안 쳐다본다. 한참만에 그는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댈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나무 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라 내리고 있었다. 60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

2 (a) Passage 1 과 Passage 2 에서 불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십시오.

(b) Passage 1 과 Passage 2 에서 전쟁이후 주인공들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BLANK PAGE

Copyright Acknowledgements:

Passage 1 © Keun-Chan Ha; *Sunan Idae*.
Passage 2 © Kyong-Li Pak; *Bulsin Sida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